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05
교회를 세운
옷감 장수, 루디아

(사도행전 16:11~40)

안녕, 친구들~ 오늘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여성 루디아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님, 마케도니아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자,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제국의 식민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곳이 없었지 뭐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찾아오자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이리 저리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강가에 이르러 강가에서 옷감을
세탁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네요!

“이거 잘 됐다.
이분들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중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게 했습니다.

**“바울님, 이제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가요
저희 집에 편히 머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당시에는 자줏빛 옷은 왕족이나 고관 귀족들만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 높으신 로마사람들도 옷을 지으러
루디아를 많이 찾아왔겠죠?

루디아는 사실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먼 외지 출신이었지만
고급 옷을 만들면서 높으신 분들을 상대하니깐
넓고 좋은 집도 장만했을텐데요.

이제 그 집을 바울 일행이 묵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출발지로 삼게 한 거지요.

**“내가 공들여 마련한 이 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이게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여기저기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생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도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가는 길인데
한 여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구~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야~“**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 자기 주인들을 위해
점을 쳐주는 여종인데요.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나 봐요!**

**요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치면서 쫓아다녔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은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귀신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거라!”**

귀신이 나오자 여종은 정신을 차리고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점도 칠 수가 없어서 주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먹살을 잡고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유대 사람들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대요.
로마 시민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관습을 강요하고 있어요! 벌을 좀 주세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얻어맞고 불쌍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수갑이 다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자다가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바울이 와서 말렸어요!

**“워~워~ 그러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그대로 있다니까~”**

두려워 떨던 간수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죠.**

**날이 밝자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왔어요.**

사실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아이고, 저희가 로마 시민이신 걸 몰라 보았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니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른 도시로 가서서 좀 해주시지요~”

“음... 알겠소이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하는데 말이야, 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루디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격려해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까요.

“바울 선생님, 빌립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마음 편히 떠나세요.
저희가 이곳에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
지킬테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와 빌립보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어 부흥했어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